

광주 사립대 추합 논란... “소극 행정 때문” vs “뒤늦게 합격 포기”

예비 5순위 수험생 “포기 문의 수험생에게 소극적으로 안내” 학교 측 “추가합격자 발표 시간 넘겨 포기...종용 할 수 없어”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약학과에 예비합격한 수험생이 학교 측의 안이한 태도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기존의 합격생이 추가모집 마감시간을 넘겨 포기해 예비후보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광주의 A사립대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사립대 약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역인재 전형 예비 5순위로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5순위 수험생은 기존 합격자들이 등록을 포기하면 순번에 따라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

이후 1차 추가모집(2월 9일) 때 예비 3순위까지, 2차(2월 10일) 때 4순위 예비후보 수험생이 합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 6차 추가 모집(2월 16일)이 진행됐을 때 기존의 합격생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등록 포기 의사를 보임에 따라 예

비 5순위 수험생도 합격을 기대했다.

합격생은 실제 지난 16일 오후 5시 14분께 학교 측에 전화상으로 등록 포기 절차를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차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까지이다. 이후 등록 포기 절차를 문의한 학생은 17일 오전 A대학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모집 규정에 따라 시간 내에 등록포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추가 합격자를 모집 할 수 없다. 규정은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지속할 경우 상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비 5순위 수험생은 학교 측이 합격생이 빨리 등록포기 할 수 있도록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예비 5순위 학생은 “A사립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요강에는 5~6차 추가합격자는 합격생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합격 사실을 개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합격생의 등록 포기 의사를 확인한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등록포기 절차를 안내 하지 않아 처순위 후보가 합격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립대 측은 “2023학년도 신입생 6차 추가모집 마감 기간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동일한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였다”며 “합격생이 전화로 문의했을 때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등록 포기 절차를 안내했으며 합격생이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다음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포기를 문의한 뒤 다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 마음을 바꾸는 수험생들도 있어 학교 측에서는 절차만 안내하도록 매뉴얼화 돼 있다”며 “예비 5순위 수험생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포기한 합격생이 추가합격 마감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학교 측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철문 사이로 보이는 운동장 서울 화양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를 발표한 가운데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동하고 있다.

광주FC 사무처장, “강제퇴사 종용했다”며 공무원 2명 고소

해당 공무원 “사퇴 종용한 적 없다” 주장

광주FC 시민프로축구단 사무처장이 ‘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정 공무원들이 나에게 강제 퇴사를 종용했다’며 광주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FC 사무처장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취지와 함께 광주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21일 광주지검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 통해 광주F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B씨 등 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축구단 2층 사무실로 찾아와 ‘구단주가 바뀌었으니 책상을 빼 달라’고 말하면서 강제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광주FC 사무

처장의 임기는 2년이다.

A씨는 “B씨 등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임 시장 재직 당시 채용됐던 나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지만, 나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급기야 나에게 ‘책상을 빼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다른 직원들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광주FC 조직을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비상설직인 경기지원단장으로 내정, 스스로 사표를 쓰도록 했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 나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소된 B씨는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다른 직원과 함께 구단 사무실을 찾

아간 적이 있다. 광주FC 구단주와 대표이사가 바뀐만큼 인사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려 갔다. A씨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며 ‘계속 하겠다’고 해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책상을 빼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퇴를 종용한 적도 없다. 그럴만한 권한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임 대표이사 A씨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직개편은 광주FC 경영 평가 결과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팬들과 서포터즈의 혁신 요구도 이어져 왔다. A씨가 맡았던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광주FC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80대 친모 든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구속 기소

범행 사용 둔기, 세제로 세척해 은폐 시도

검찰이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을 범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6일 오후 3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

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발견됐을 당시 그의 손과 발에는 테이프가 험하게 감겨 있는 상태였다.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세제로 세척하는 등 범행은폐 시도도 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무렵 그는 태연하게 PC방에서 음

약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